

온난화 폭소극장 파트 원

# 점점온난화

이시가키 마사히로 작

형연희 / 천태명 번역

Cast

곰 수컷 (쿠마)

곰 암컷 (쿠마코)

잠자리 유충 (야고)

록가수

무대에는 높이가 다른 3 개의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받침대는 의자나 자동차의 좌석으로 사용된다. 괴상한 동물의 모습을 한 락가수가 무대를 지나간다.

♪ 온난화

하느작하느작 거리를 걷는 아가씨  
검은 피부가 마음에 걸려  
태양 가득히 sun sun sun  
... 이라는 것이  
전기 가득히 sun sun sun  
목이 쉬어버린 오라버니  
오늘도 결정했지 RV  
자연 가득히 sun sun sun  
... 이라는 것이  
가솔린 가득히 sun sun sun  
점점 온난화  
점점 온난화  
어찌해도 멈추지 않는 온난화

혈렁혈렁한 바지를 입은 나이 든 수컷곰이 뜨개질을 하면서 무대에 등장 (적당한 에드립으로...)

쿠마        요즘 뜨개질에 푸욱 빠져 있습니다.  
네. 그녀에게 줄 선물이에요.  
백화점에 가면 이런 스웨터 같은 건 정말 쉽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말이죠...  
뭐랄까... 사랑이랄까요?  
(회장의 사람들에게) 저기, 당신... 가끔 그런 생각 든 적 없나요? “뜨개질 한 스웨터를 선물하고

싶다” 는 그런 생각... 그런 적 없어요? 아뇨~~~  
남자라서 부끄럽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신의 작은 용기가, 뜨개질을 하고 싶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자~ 말해 볼까요? 「뜨개질이 하고 싶어!!」 라고요.  
그래요. 저 뒤에서 혹은 화장실 안에서 중얼거려도 좋아요. 예? 맞아요. 저같은 곰이 뜨개질을 한다니, 별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곰에겐 긴 새끼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뜨개질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요.... 사랑이라는 걸까요? 후후후... 손톱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했어요. (손톱으로 재빠르게 떠보인다)  
실은 요사이 벼룩시장에서 스웨터 세벌을 싸게 샀답니다. 그것들을 풀어서 이렇게 3 가지 색의 털실을 만들었죠.

야고(잠자리 유충)가 신문지를 몸에 휘감고 부스럭부스럭 거리고 있다. 주변에는 빈 깡통과 병들이 흩어져 있다.

쿠마        이제 곧 12월, 그녀의 60 번째 생일이네요.  
59 번째 생일에는 손으로 뜯목도리였구...  
그 전의 58 번째 생일에는 매듭목줄 뿐이었어요.. 많이 발전했죠? 올해는 큰 맘 먹고 스웨터로... 후후후. 사랑이라는 녀석일까요? 참!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말이죠.. 교토에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네요. 지구가 점점 더워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더군요. 요전에는 토야코에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하던데... 일본 속담에 (성냥불에 펴프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불을 붙이고 불을 끈다는 뜻인데요. 자업자득이라는 뜻으로 이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구가 따뜻해지면 뜨개질 한 목도리는 쓸 수 없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어라? 어라? 이렇게 어지럽히고... 어이~ 절루가~(야고를 밀어냄) 신문은 신문끼리 모아서 재활용용으로 묶어 뒀어. 아, 캔이나 병은 말야, 확실히 모아뒀어 하구.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이 근처의 산이 하이킹 온 사람들로 붐볐죠. 모두 돌아간 후엔 이 상태구요. 자연을 가까이 한다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공이 뒷정리를 한다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 할 거예요.

암컷 곰 등장. 다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쿠마코 (얼굴을 봤더니 크게 하품을 하고 있다) 어머 미안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근처에 편의점과 캠프장이 생겼는데요... 전깃불을 환하게 켜 놓고, 음악을 크게 틀고 바베큐를 하는 거예요. 아바바바. 어머 미안해요.

쿠마 아뇨. 괜찮아요. 평소같으면 우리가 겨울잠을 잘 시기니까, 졸린 건 어쩔 수없죠. 저 역시 겨울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겨울이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품... 우훗. 귀여워요.(수줍어 함)

쿠마코 그런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 온 거죠? 나 여기 싫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쿠마 (회장을 보고) 탁 트인 곳이라 별로 인가요? 그쵸~~~ 연애장소는 역시 으스스하고 조용한 곳이... 흐흐흐.

쿠마코 저기, 부탁이야. 다른 데로 가요.

쿠마 다른 곳에 가도... 아, 좋아요. 자~ 자전거를 가지고 갈게요.

쿠마코 자전거로 간다구?

쿠마 네, 옛날부터 곰의 탈 것은 자전거나 공이었죠.

쿠마코 나도?

쿠마 네, 싫증난다고 인간이 버린 2인승 자전거가 있어요. 한번 당신과 타보고 싶었죠. 최근까지 멧돼지를 태우고 연습을 했는데요. 멧돼지란 녀석이 등에 딱 달라붙어서 말이죠. 비린내 나는 콧김이 등에 막 달아서 흥흥... 다시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요. 언덕을 넘어서 달려요 사이클링 사이클링 야호~야호~ 자전거 여행 (곰, 신나서 춤을 춘다) 아싸아싸~~ 원투!원투! 건강에도 좋다구요~~~공기도 오염시키지 않구요~~

쿠마코 (곰의 옆을 치며) 그만해! 뭐가 사이클링이야... 피곤 할 뿐예요.

쿠마 그래도요, 배도 썩 들어가고...

쿠마코 (자기 배를 보고) 어이, 어이, 지나친 오지랖이 네요. 이런 도움도 안되는 목도리나 짜고 있고 말예요. (목도리를 던져 버린다) 꿈이면 좀 더 꿈 답게 멋지게 안 되요?

쿠마 앓, 그건 59 번째 생일의...

쿠마코 그래, 내 59 번째 생일에 준 거죠 당신이... 하지만 이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도리 따위 할 정도로 추운 날은 이미 지나갔다구요. 아하, 당신은 그걸 알고서도 목도리를 선물 한 거네.

쿠마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하아 공란하네. 눈앞이 감감 (암컷꿈에게 맞는다) 아봐 아야야야...

쿠마코 이젠 이런 곳 싫어요! 사는 곳 바꿀래.

쿠마 바꾸다니요... 하지만, 좀 있으면 겨울이고,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새로 살 곳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60 년이나 살아왔는데.

쿠마코 뭐가 60 년이예요! 나 그렇게 나이든 노인네 아니라구... 아직 59 살이라구요! 겨울잠 같은 거 자면 잔주름만 늘어날 뿐예요. 지금이라면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부터 온수 풀장에 다닐거예요. 이제 김태환 선수처럼 수영 잘 할거야

쿠마 하지만, 꿈은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겨울엔 먹을 게 없잖아요. 게다가 수영하는 거라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쿠마코 답답해.. 그런 생활. 매일 사람이 남긴 신문이나 광통 정리만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면 좋지 않나? 도시에선 모두 그렇게 한대구요. 게다가 변화가 근처에 가면 음식이 다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버려진대구요... 아 꿈의 도시. 나 도시로 나갈래요.

쿠마 만물박사시군요.

쿠마코 매달 공배달원이 배달해 주는 월간지 [세씨]에 [오늘날 도시꿈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특집이 실려져 있었어요. 그 안의 [우아한 꿈의 생활 - 중후한 꿈의 신식생활]이라고.

쿠마 신식생활인가... 좀 구식인데요...

쿠마코 게다가 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대구요.

쿠마 에? 그게 설마?

쿠마코 매우 멋진 분이죠. 권상우, 강동원, 이준기 같은 꽃미남 이라고나 할까? 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 이제 곧 3 단 RV 차로 날 데리러 와 주실 거예요. 그 분이 사시는 곳에는 에어컨이 있고, 1년 내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꼭 하고 손앞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 만으로 커다란 화면의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꿈 이대로 좋은가! 아침까지 끝장토론] 을 돌이켜 보다 아침이 오는 것도 모르고... 어머, 미안해요.

쿠마 하지만, 자원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꿈은...  
(실망한 듯 고개를 푹 숙인다)

쿠마코 59 년간이나 꿈이었어요. 이젠 싫어요. 나에겐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구요. 이거,  
돌려줄게요. 안녕. 미스터 리사이클.(퇴장)

쿠마 [리사이클 꿈]이라니... 마치 내가 재활용  
당하는 것 같아... (실망하면서 봉투 안을 본다)  
내가 58 번째 생일에 선물한 매듭목줄.

꿈이 실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때에 가수.  
발라드풍으로...

♪ 달콤하고 애절한 사랑이야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트브레이크  
(코러스) 기브미 포슬 퓨엘  
누군가 알려줘. 서스테이너블~~~  
(코러스) 러브유 덴터 C-0-2-  
내가 방해가 되는 거라면 베이비~  
온난화랑 같게 베이비  
눈 앞이  
(코러스) Oh! 눈 앞이  
크라이시스  
(코러스)크라이시스  
기분 내키는 대로 씨 레벨 라이즈  
(코러스) 기브 미 포슬 퓨엘  
오늘밤도 가스가 히트럽  
(코러스) 러브유 덴터 C-0-2-  
얼음이 녹고 있어 베이비

날씨도 포악해져 베이비  
눈 앞이  
(코러스) Oh! 눈 앞이  
크라이시스  
(코러스)크라이시스

잠자리 유충이 어슬렁어슬렁 날아 온다.

야고 저거,저거, 아찌. 왜 추욱 쳐져 있나용? 저거  
아찌!!!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쿠마 나는 이미 글렀어... 넌 누구?

야고 야고예요.

쿠마 어째서 고양이가 이런 곳에?

야고 고양이?

쿠마 그러니까... 지금 냐옹이라고...

야고 냐옹이가 아니고 야고예요. 잠자리! (꿈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 본다) 잘 봐요~~  
♪잠자리 안경은 물색 안경 (꿈 엉덩이를  
긁는다) ♪뿔어질락 말락

쿠마 어이 너 잠자리 유충이지? 침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좋잖아. 냐옹이라고 그러고...

야고 그래서 말 했잖아요.

쿠마 그런데, 잠자리 유충이 어째서 이 계절에??

야고 그게, 나도 잘 몰라요. 나는 당신과 달라서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배우질 못했어요. 부모자식 간의 단절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나는 처음부터 부모님이 없으니까요...

쿠마 정말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날라리가 된 건 아니지?

야고 날라리 아네요!!

쿠마 하지만,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으니까...

야고 그래서 야고(유충)라고 말했잖아요!

쿠마 하지만, 이미 12월인데. 네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야고 음... 뭐, 그렇게 말한다 해도 이미 이렇게 되버린 걸요.

쿠마 [되버린 걸요]라니. 아아... 부산스러운 녀석. 성가신 놈이 나타났구만...

야고 이상한 건 나 뿐 만이 아니라구요

쿠마 뭐! 또 있어? 이를 어째.

야고 예, 최근 하늘을 날게 된 친구의 이야기로는...

쿠마 결국 잠자리구나. 그건 친구가 아니라 네 부모일지도 몰라.

야고 예? 그가? 누가 내 부모인가요?

쿠마 몰라. 나도. 그래서?

야고 잘 가. 엄마.(흠쩍) 에에. 그 친구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먹이로 먹고 있는 모기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쿠마 넌 역시 이상한 녀석이야.

야고 예?

쿠마 어린 녀석이 이본을 어떻게 알지? 초딩은 이본을 모를텐데. 나도 옛날엔 이본을 좋아했지. 흐흐

야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변]이라구웁.

쿠마 그다지 사과할 일은 아냐. 이본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 이상한 일이 뭐니?

야고 네, 먹이로 먹는 모기에, 이전에는 남쪽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기가 섞여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지금까지 남쪽에서만 살고

있던 모기가 이곳에서도 보인다는 거잖아요.  
남쪽의 모기 맛있지 않아요?

쿠마      글썸, 모기는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야고      여하튼 남쪽나라의 모기는 맛있어요. 게다가  
정체 모를 병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잠자리가 되어 갈 저는 불안하고  
불안해서...

쿠마      (짜증을 내며) 모기따위야 어찌됐든 상관 없잖  
아? 모기따위야. 나는 최선을 다 해서 짠 목도리  
가 버려졌다고. 손으로 짠 스웨터도 끝이야.

야고      모기따위라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이건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 하니깐요. 어쩌면 지구의  
온난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쿠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말 그만하라구! 난 돌려서  
어렵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믿어 왔었어!  
재활용이 좋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 왔어! 근데  
이 꼴이야. 재활용이 뭐? 미래를 구해? 나에겐  
이제 미래가 없어.

야고      하아~~ 뒤에서 지켜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쿠마      어떡해야 좋지? 국어수업 보다 어려워.

야고      뭐예요? 그게!

쿠마      그러니까, 킹왕짱 어렵다구.

야고      당신은 나를 유충이라고 생각하고 바보취급 하는  
거죠? 좋아요. 머지않아 당신의 먹잇감을 여기  
에선 구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요.

쿠마      그건 무슨 말이야?

야고      동료의 말로는 이 지구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기온이 2도에서 3도 오를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지구의 식물은 지금과는 달라지게  
되요. 또한 그 영향은 생물에게 이어지게 되구요.  
결국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동물도 식물도  
없어지게 되고 만다구요.

쿠마      쳇, 별것도 아닌걸로 시끄럽게 구네. 하루 기온을  
생각해봐. 아침과 점심이 10도 이상 차이 날 때도  
있다고 10도나~~~ 2, 3도 정도야 아침밥 먹기  
전에 나오는 뽀뽀뽀체조 같은 거야.

야고      그래요, 최근에는 뽀뽀뽀도 잘 안보고... 틀려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구에는 추운 곳도 있고 더운  
곳도 있어요. 그 지역들의 1년간 평균온도가 2도  
정도 차이가 난다니깐요.

쿠마      나 산수 20점 넘긴 적 없거든~

야고      그럼, 공씨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기로 해요.

쿠마            정말, 입상스런 말투로군.

야고            (과장하면서)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알 들어주세요. 빙하기가 있었지요. (등에서 설명플래카드를 꺼낸다. 거기에는 「빙하기」라고 적혀있다.) 지구전체가 퐁퐁 얼어 붙은...

쿠마            빙! 빙! 빙!

야고            네?

쿠마            빙! 빙! 빙! [빙]하기 라며???

야고            [빙]이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빙하기말이에요. 저기, 지구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서, 많은 동물들이 죽었던 빙하기말이에요.

쿠마            그렇게 춥다면, 우리들은 모두 북극곰이 되겠지.

야고            아휴 북극곰 되기가 쉬운 줄 아시나봐~. 들어보시겠어요? 그건 말이죠, 평균기온이 겨우 3도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된대요~~. 일본의 아오모리에 있는 三内丸山遺跡 (산나이마루야마유적). 알고 계시죠? 죠몬(縄文)시대의 유적. 그 시대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겨우 1도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해수면은 지금보다 4에서 5미터나 높았다고 해요. 변변치 못한 옷을 입은 죠몬인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후였다는데...

쿠마            니가 봤어?

야고            월요?

쿠마            죠몬인을 봤냐구?... 안 봤잖아? 거봐, 별것 아니라니깐. 신경쓰지마. 그런데.. 온도가 3도 높아지면...

야고            (먼 곳을 응시하며) 네, 아주 큰일이...

쿠마            (야고의 머리를 때리며)갑자기 이상한 목소리 내서 놀래키지 마.

야고            지구는 초록빛을 잃어버리고, 사막이 넓어져요. 남쪽의 얼음들이 녹아버리고, 바닷물이 증가해요.

쿠마            웁.웁.

야고            (곰을 노려보면서)해수면이 1미터나 상승해서, 육지는 물에 잠길거예요. 홀란드나 방글라데시처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침...물...되겠죠. 아 그럼, 투발루는 어떻게 되는거지...

쿠마            네 얼굴이 훨씬 더 무섭다. 쳇.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잠깐, 그런데 왜 지구는 따뜻해지는 거지? 태양이 비추니까, 따뜻해지는 거 아냐 자연히...

야고            그 점이 말이에요 곰씨.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우리들 동물의 「어리석음 · 어리굴젓 ·

명랑젓 · 동해안 수산시장 · 수산시장의 젓갈  
아가씨 · 잘 보면 젓갈 총각」이예요.

쿠마 뭐야 그게.

야고 이산화탄소예요. 바로 CO2 예요.

쿠마 뭐라고?

야고 이산화탄소예요. CO2 예요.

쿠마 알 수 없는 녀석이로군. 이산화는 또 누군데?  
이름 꼬라지 하구는. 이산화가 소를 타나디...  
이산화가 탄 소? 하하하.

야고 그게 아니구요(플래카드를 꺼낸다 「이산화탄소」  
「CO2」), 보통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나가는  
열이 아주 적당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탄소를 환산해서 연간 60 억톤이나  
방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라는 가스가 말이에요,  
지구를 파괴해 버리는 주범인데요... 이 놈이 열이  
빠져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쿠마 그럼, 커다란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그 가스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겠어?

야고 청소기로는 빨아들일 수 없어요.

쿠마 청소기라면 될거라니깐!

야고 끄!!! 뭐, 바다가 그런 데로 빨아들이겠지만...  
그게, 급격히 불어날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요.

또, 숲이 있으면 숲이 이산화탄소를 조금은 빨아  
들어주겠지만,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  
라서,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숲도  
점점 줄고 있잖아요.

쿠마 탄산가스인가. 걱정이로군. 근데, 그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야고 아니오, 증가하고 있어요.

쿠마 그래서, 걱정이라고는 하잖아... 아~ 됐어.  
그만하자. 너무 공부했더니 머리가 아프다.

멀리서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린다. 곰, 그쪽을 본다.

쿠마 소란스럽군, 12 월이 됐는데도 하이킹인가. 어라!  
그것보다 그녀가 왔네. 큰일이다 한시가 급해!  
나한테는 온난화보다는 이게 더 큰일이야. 나는  
다시 태어났대구. 어제까지의 리싸이클 곰이랑은  
다르다구. 신식생활의 최첨단을 걷는, 모던곰이야.

야고 (작은 목소리로)부인이세요? (곰에게  
얼어맞는다)때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쿠마 너는 여자를 보면 모두 부인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잠자리인 게야.  
진화해, 진화. 우리들 포유류처럼 가슴이라도  
내밀어봐! (야고, 자신의 가슴을 보며, 속삭인  
다) 뭐라고! 「가슴이 작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밀기는 부끄러워»? 바보녀석, 그런 말 하는  
거 아냐!

야고        좋은 거 가르쳐 드릴까요??

쿠마        됐어. 말 하지마.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곰, 갑자기 썬글라스를 꺼내어, 영계인 체 하다.

쿠마        와우, 오래간만이군. 쿠마코씨.

쿠마코      그런가, 아까 만나지 않았던가요.

쿠마        그... 그런가! 아, 덤군, 12월인데도.

야고        온난화예요.

쿠마        (야고에게) 눈치 없이 끼는 거 아냐

쿠마코      무슨 일이라도? 제가 좀 바빠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쿠마        저기, 그 해변까지 에어컨이 나오는 차로 달려보지 않을래?

쿠마코      (놀라면서)네? 아까 당신은 자전거로, 게다가 당신은 면허도 없지 않았나요?

쿠마        그래서, 택시로... 가야 하는데... 그게 싫으면, 내 곰피스텔에서 DVD 라도 보면서 밤을 지새워보지 않을래, 캔맥주라도 사가서.

야고        알루미늄 캔은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구요. 재활용 가능한 병맥주로 마셔주세요.

쿠마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랄지. 연금저축을 사용하면, 에어컨 한, 두 대쯤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쿠마코      그래도...

쿠마        손으로 짠 스웨터 따위는 그만 됐어. 지금까지 만들어 준 거 전부다 버려버려. 계속 새로운 거 사줄게.

쿠마코      당신, 지난번까지 리사이클에 몰두해 있었잖아요. 대형쓰레기를 주워서,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아는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쿠마        그건, 오래 전 일. 나는 이미 변했다고. 소비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포스트 뉴에이지라고.

쿠마코      당신 변했군요.

쿠마        변했어? 알아 본 거야? 어때, 다시 봐 준거야.

야고        보스!

쿠마        (작은 목소리로) 바보녀석, 언제부터, 내가 네 녀석의 보스가 된 거야.

야고        온난화, 온난화, 에너지절약이에요. 리사이클이에요.

쿠마 시끄러웠! 지금 좋은 게 뭐야. 뭐가 에너지 절약이야, 그렇게 말할 거면 잠자리의 날개로 풍력발전이라도 해보던가.젠장, 이런 신문 따위 될 대로 되라지. (신문과 캔병을 던진다)

야고 아얏, 아얏. 그만하세요. 저는 단지...

쿠마 너 같은 잠자리 따위가, 내 괴로움을 알 리가 없잖아. (야고를 여기저기로 뒤쫓다)

야고 알긴 하지만, 아파요.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쿠마 이 녀석, 나도 에너지절약하고 싶어. 그래도, 에너지절약, 리사이클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 내 마음은 점점 허해져 간다구. 이 나이가 되어서, 겨우 좋아하는 꿈이 생겼는데.

쿠마코 그만둬.

쿠마 (갑자기 그만둔다) 네.

쿠마코 이 분이 말하는 게 정말이에요?

쿠마 뭐라고, 쿠마코씨?! 이 녀석은, 「이분」이라고 부를만한 녀석이 아니야. 말뿐인 야고라고. 자, 문화생활 하러 가자.

쿠마코 정말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쿠마 어떻게 된 거야 쿠마코까지! 설마, 등에 이 녀석의 친구인 흰잠자리라도 붙어 있는 건 아니겠지. (쿠마코의 뒤로 향한다. 잠자리를 떼어내려는 동작.)

쿠마코 나도, 그것은 알고 있었어. 당신이, 물건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언제나 언제나 부럽다고 생각해왔어요.

쿠마 (야고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 애기해 줄것이지...

쿠마코 그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온난화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반대로 당신에게 반발했었어요.

쿠마 ...

쿠마코 내가 나뻐서요. 오늘 말이에요. 그 꿈이랑 자동차로 달리고 있었어요. 해변을

쿠마 어떡해. 해변이래(야고를 때린다.)

쿠마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가보니 별장 한 채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더라구요. 올해 들어서 이상한 일들 뿐이고, 해안선도 한참이나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머지않아 토대가 파도에 쓸리진 않을지...

쿠마 정말이야?

야고            이상해, 온난화는 그렇게 갑자기는 오지 않을 텐데...

쿠마            그런 거 아냐? 이봐, 우리 집 할머니처럼 「저테 왔으니까 들러 봤다 아이가」랄지.

쿠마코         카.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오늘부터 거리에서 전력을 60 퍼센트나 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가솔린을 넣으려 했더니, 대형 자동차에는 가솔린을 팔지 않겠다고 했구요.

쿠마            그래서?

쿠마코         그는 화가 나서, 주유소를 망가뜨리고, 가솔린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쿠마            뭐 하는 녀석이야. 곰의 수치다.

쿠마코         나도, 어찌저찌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오는 길에, 여러 광경을 보았어요. 누군가가, 가솔린을 빼돌렸 다든둥 그런 일들로, 마을은 패닉상태. 「전기달라」 「연료달라」고 소리 지르며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그 사람들이 연료가 되는 장작을 찾으러 숲으로 쳐들어온다고 해요.

또 다시, 먼 곳이 시골벽적이다. 배경 어딘가가 타고 있는 것 같다. 연기도 나고 있다.

야고            걱정하고 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쿠마            제기랄. 내 마음은 마그니튜드 7.2로 흔들리고 있어. 너, 뭔가 알고 있었지? 잠자리 친구들에게 들었겠지.

야고            온난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네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상승효과라는 놈이겠죠? 뜨거워져서, 생물 환경이 변할 거예요. 탄소가 고정화·흡수화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더더욱 뜨거워지겠죠. 하지만 이렇게나 빨리...

쿠마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왔는데, 모두들 안심했었어요. 자기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에 말이죠. 나 조금 무서워져요...

쿠마            조금 더 일찍 생각해 주면 좋았을 것을. (반 울고 있다) 늦었어, 저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우리들의 숲도 없어질거야

쿠마코         그럼, 어찌지요.

야고            보스! 화성처럼 물이 없어지는 건가요.

쿠마            보스가 아니라니까. 어째서 화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어쨌든, 우리들의 숲을 지키지 않으면 안돼. 녀석들은, 패닉상태일 뿐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참아 나가면, 지금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어.

야고            자신만만하군요. 사랑은 곰도 변하게 하는군.

쿠마            야고, 네 머리가 필요해. (야고 머리를 내민다)

그게 아냐. 네 지혜라구. 너희들은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계속 이 지구를 봐왔잖아.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지구가 멸망하려고 하는 지금 너의 그 지혜로 다시 살리는 거야.

야고 알았어요.

쿠마 좋아. 가보자구!

쿠마코 좋아요. 당신, 다시 목도리 짜 줄래요? 다음 번엔 이니셜을 넣어서. 온난화는 우리들의 손으로 멈출 수 있어요. 응. 그렇게 생각해요.

야고 넵!

쿠마 네가 대답해서 어찌겠다고.

쿠마코 저기, 공씨...

쿠마 넵!

다시, 이상한 동물모습을 한 락커가 무대를 지나간다. 라틴계 리듬을 타고.

#### ♪ 머니의 마법의 주문

우리 집 할머니는 80 세에도 튼튼  
지금까지도 지하철, 시내버스  
장바구니, 에코백  
보자기 짊어지고 쇼핑에서 돌아옴  
넘어지기 전에 먼저 외우는 마법의 주문

온난화 끝나면 수리수리댄스 수리수리마수리

우리 집 할머니는 80 세에도 튼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장바구니, 에코백

타올을 머리에 쓰고 햇빛도 가리고 처마끝 그늘에서  
수다

넘어지기 전에 먼저 외우는 마법의 주문  
온난화 끝나면 수리수리댄스 수리수리마수리  
당신도 유 캔 우리도 아이 캔  
온난화 끝나면 수리수리댄스 수리수리마수리

노래 중에 배경색이 변하고, 연기가 가득해진다.

막이 내린다